

중국 파견학생 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제시

최선진*

【목 차】

1. 서론
2. 문화역량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3. 측정결과 분석
 - 1) 교환학생 전, 후의 문화역량 변화
 - 2) 교환학생 전과 과정 중의 요인
 - 3) 요인별 문화역량 변화
4. 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제시
5. 결론

【초록】

국제화 시대에 따라 해외 파견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교류에 필요한 문화역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해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중국지역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지역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역량 변화와 교환 전과 과정 중의 요인에 대한 문화역량의 관계를 조사·분석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A 대학 중국학부 학생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지역으로 파견 간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교환 전과 후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2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동일 집단 53명을 연구대상 범위로 정하였다. 통계 결과와 주관식 의견을 토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3가지 교육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교환학생 선발방법 변경 또는 추가 조건제시, 2)기 경험자가 참여하는 정보망 구축, 3)교환 전 교내에서부터 현지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자이다. 본 연구의 제시방안을 활용하여 중국지역 파견뿐만 아니라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

【키워드】 중국 파견학생, 교환학생, 문화역량, 교육방안, 탄템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강사 (hohohaha4321@gmail.com)

1. 서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유럽의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¹⁾이 있다. 초창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외국어와 전공 능력향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학생들의 문화역량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된 문화 태도와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Teichler(2004)²⁾는 학생들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참가 국가와 협정 학교에 완벽하게 적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에 문화적 영향이 상당히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국내 외국어 교육에서도 문화역량은 타문화 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³⁾

해외 교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참여자의 경험에 따른 역량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지역은 영어권 국가였다. 중국 지역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 역시 중국 단독이 아닌 일본과 함께 아시아 그룹으로 묶어 조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⁴⁾가 가장 많은 28.9%를 차지하는 중국지역을 단독 연구지역으로 정하여 교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문화역량 변화에 중점을 두고 교환학생 전과 과정 중에 어떠한 요인이 문화역량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참여 학생들의 전체 문화역량과 각 세부항목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파악한 후, 문화역량 향상에 따른 학생들의 언어능력 향상과 성취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또한,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교환 전의 요인으로서는 성별, 중국 체류경험 여부, 현지 지인여부, 자격증, 교내 평점, 파견종류, 사전준비, 개인성향을 조사하였고, 교환 후 설문 조사에서는 교환 과정 중의 요인으로 수업형태, 현지인과의 교류, 학습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교환학생에 대한 개선점과 바라는 점을 조사하여 문화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 소재 4년제 A 대학 중국학부 학생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차 조사로 중국지역 교환학생 프로그램 합격생을 대상

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은 유럽연합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1987년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하였다. (나무위키)

2) Teichler U, "Temporary Study Abroad: the life of ERASMU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39(4), 2004. pp.395-408.

3) 안원실, 「학습자 중심의 일본어 교육 -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교육연구를 통해」, 『일본어학연구』, 제35집, 2012, pp.223-236 ; 이승연,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에 대한 다각적 검토: 교사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이중언어학』, 제55집, 2014, pp.219-247 ; 박세영, 「평생교육기관에서 중국어회화를 배우는 중장년 학습자의 문화적 역량 탐색」, 『평생학습 사회』, 제14권 제4호, 2018, pp.111-135.

4) <2018년 주요국가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 미국 | 중국 | 영국 | 호주 | 일본 | 캐나다 | 뉴질랜드 | 필리핀 | 기타 |
|-------|--------|--------|--------|--------|--------|--------|-------|-------|--------|
| 인원수 | 58,663 | 63,827 | 10,717 | 16,801 | 15,740 | 12,279 | 5,178 | 6,527 | 31,198 |
| 비율(%) | 26.6 | 28.9 | 4.9 | 7.6 | 7.1 | 5.6 | 2.3 | 3.0 | 14.1 |

*출처: 교육부 정책정보공표

으로 교환 전 조사를 시행하고, 2차 조사로 교환 프로그램 성적등록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환 후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교환 전과 후 2종류로 전체 설문응답자 126명 중, 2종류 설문지를 모두 마친 53명의 응답자 답변을 연구대상 범위로 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학생 후 문화역량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둘째, 요인별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대처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문화역량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노충래·김정화(2011)는 문화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뜻이 있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문화는 특정한 사회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고 하였다.⁵⁾

문화역량 개념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Green(1982)과 Pinderhughes(1989)가 문화역량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고⁶⁾,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김연희(2007)⁷⁾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위미나(2007)⁸⁾는 문화교육 분야에서 문화역량 개념과 구성요소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각 분야에서 문화역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화와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문화역량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에 따라 문화역량 측정도구 역시 학자들에 의해 많이 개발되었다.

문화역량 측정도구는 국외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왔는데, 그중 Chen·Starosta(2000)⁹⁾와 Fantini·Tirmizi(2006)¹⁰⁾가 개발한 문화역량 측정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다.

Chen·Starosta(2009)는 문화역량을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이라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구성요소로 문화간 인식(awareness), 문화간 감수성(sensitivity), 문화간 행동성(adroitness)을 제시하였다. 문화 인식은 지식에 대한 인지도이며, 문화 감수성은 문화 인식, 인정, 차이, 존경을 나타낸다. 문화 행동성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기술적인 행동을 말한다. 평가도구는 24문항으로 상호작용 참여도(interaction engagement), 문화차이 존중도(respect for cultural differen

5) 노충래·김정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사회복지학』, 제 63권 제2집, 2011, p.210 참조.

6) Doman Lum,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engage Learning, 2010, pp.4-5 참조.

7) 김연희, 「한국 사회의 다문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제35집, 2007, pp.117-144.

8) 위미나, 「문화적 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9) Chen·Starosta,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2000, pp.1-15.

10) Fantini·Tirmizi, "Explor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World Learning Publications*, 1, 2006, pp.1-74.

ce), 상호작용 자신감(interaction confidence), 상호작용 향유도(interaction enjoyment), 상호작용 주의도(interaction attentiveness) 5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이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해외 교류와 외국어학습과 관련된 문화역량을 측정하는 연구도 있다.¹¹⁾

Fantini·Tirmizi(2006)¹²⁾는 문화역량을 언어와 문화를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할 때 적절하게 수행해야 하는 능력의 복합체로 정의하고, 해외 자원봉사 교류를 통한 문화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양적 조사에서는 문화역량을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기술(Skills), 인식(Awareness) 4가지 하위항목으로 분류하여 전체 4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화적 지식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말하며, 문화적 태도는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또는 자세를 의미한다. 기술은 소통 기술을 나타내며, 인식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 차이를 스스로 통찰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해외 교류와 다문화 경험의 참여가 언어능력을 향상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언어능력 향상에 대한 질문도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문화역량과 언어능력을 합한 전체 57문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두원(2011)¹³⁾이 한-중 대학생의 SIT(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¹⁴⁾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전체 50문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김영기 등(2016)¹⁵⁾은 문화역량과 관련된 측정도구를 Fantini(2000)¹⁶⁾가 개발한 측정도구 22문항 중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 적합한 문항을 발췌하여, 문화역량에 대한 구성요소를 지식, 태도, 기술, 인식, 언어능력으로 구분하여 전체 9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한중임(2016)¹⁷⁾은 Fantini·Tirmizi(2006)에 근거하여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기술, 영어 유창성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전체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학습자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11) 김옥순, 「해외체류경험과 외국어 사용 능력에 따른 문화간 감수성 수준의 차이: 경기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1집, 2008, pp.45-67 ; 박분주 외1명, 「타문화 교환학생들과의 협력학습이 영어학습자들의 상호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과학연구』, 제81집, 2017, pp.81-107.

12) Fantini·Tirmizi, 위의 보고서.

13) 이두원, 「한-중 대학생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수행능력에 대한 탐색연구: 호스트와 체류자 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9권 제2집, 2011, pp.5-25.

14) SIT설문지는 FEIL(The Federation of the Experiment in International Living)연구팀의 소속연구원인 Fantini(2005)의 연구에 근거하여 만든 문화역량 측정 도구이다.

15) 김영기 외3명, 「외국인 유학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60권 제2집, 2016, pp.305-337.

16) Fantini, "A central concern: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bout Our Institution*, 2000, pp.25-42.

17) 한중임, 「가상교실 기반의 국제문화 교류협력(collaboration) 활동이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국제문화이해 역량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제19권 제3집, 2016, pp.137-157.

<표1> 국내외 문화역량 측정 항목과 문항수

| 연구자 | 항목 | 문항 수 |
|-----------------------|----------------------|------|
| Chen-Starosta(1998) | 인식, 감수성, 행동성 | 24 |
| Fantini-Tirmizi(2006) | 지식, 태도, 기술, 인식, 언어능력 | 57 |
| 이두원(2011) | 지식, 태도, 기술, 인식 | 50 |
| 김영기 등(2016) | 지식, 태도, 기술, 인식, 언어능력 | 9 |
| 한종임(2016) | 지식, 태도, 기술, 인식, 언어능력 | 24 |

연구자에 따라 문화역량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서로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요소 역시 서술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분류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측정도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Fantini·Tirmizi(2006)의 문화역량평가 척도를 기본으로 하였고, 이두원(2011), 김영기 등(2016), 한종임(2016)의 척도를 참고하여 문화역량 세부 구성요소를 지식, 태도, 기술, 인식 4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여 설문지를 만들었다. 또한, 교환학생 경험은 언어능력 향상과 관련 있다고 한 Fantini·Tirmizi(2006)¹⁸⁾를 근거로 언어능력 향상과 참여자의 성취감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문화역량 향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설문지는 교환 전과 후 총 2종류로 만들었으며, 설문내용에는 이름과 학번 등의 공통문항, 개인특성에 관한 문항, 문화역량 관련 문항, 언어능력과 성취감 문항, 주관식 문항이 있다. 교환 전과 후의 각 시기에 맞게 설문에 답하게 하였으며, 교환 전 설문지는 전체 30문항이며, 교환 후 설문지는 전체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되는 문화역량과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언어능력과 성취감은 5단계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1점 ‘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 ‘매우 그러함’으로 측정하였다.

<표2> 설문지 구성

| 항목 | | | 문항 수 | |
|------------------|----|---|------|----|
| | | | 사전 | 사후 |
| 공통 | | 이름, 학번, 교환 시작일과 종료일 | 3 | 3 |
| 개인 특성 (요인) | 사전 | 성별, 중국 체류경험, 현지지인 여부, 교내 평점평균, 자격증, 개인성향(적극도), 사전준비, 파견종류 | 8 | 3 |
| | 사후 | 수업형태, 현지인과의 교류, 교환 당시 학습량 | | |
| 문화 역량 | 지식 |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 | 3 | 3 |
| | | 중국 규범에 대한 지식 | | |
| | |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식(문화, 정치, 경제) | | |
| | 태도 | 문화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 3 | 3 |
| | | 문화교류에 대한 노력하는 태도 | | |
| | | 현지인과의 교류에 대한 태도 | | |

18) Fantini·Tirmizi, 위의 보고서, p.35 참조.

| | | | | |
|-------|-----------------------|----------------------|----|----|
| | 기술 | 수업참여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 | 3 | 3 |
| | | 현지인과의 교류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 | | |
| | | 중국 매체 활용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 | | |
| | 인식 |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 인식 | 3 | 3 |
| | | 중국 문화에 대한 학습 인식 | | |
| | |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인식 | | |
| 언어능력 | 회화 능력향상 (듣고, 말하기) | | 3 | 3 |
| | 독해 및 작문능력 향상 (읽기, 쓰기) | | | |
| | 언어능력 목표 도달 정도 | | | |
| 성취감 | 성적 향상 | | 3 | 3 |
| | 중국에 대한 흥미 고취 | | | |
| | 현지 친구 사귀기 | | | |
| 바라는 점 | 개선사항 또는 하고 싶은 말 (주관식) | | 1 | 1 |
| 계 | | | 30 | 25 |

설문지의 척도형 답변인 문화역량 항목과 언어능력, 성취감 항목에 대하여 신뢰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36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905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항목별 문항 신뢰도 역시 모두 0.6 이상의 값이 나와 각 세부항목 문항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3> 설문지의 신뢰도

| 항목 | 사전 | 사후 | Cronbach's α |
|------|----|----|---------------------|
| 지식 | 3 | 3 | .662 |
| 태도 | 3 | 3 | .750 |
| 기술 | 3 | 3 | .708 |
| 인식 | 3 | 3 | .822 |
| 언어능력 | 3 | 3 | .651 |
| 성취감 | 3 | 3 | .771 |
| 전체 | 36 | | .905 |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 SPSS(ver.25)¹⁹⁾를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맞게 통계처리 하였고, 통계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²⁰⁾ 각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하였고, 교환학생 전과 후의 문화역량 변화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고, 언어능력과 성취감에 대한 문화역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 요인과 문화역량 평균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비교분석(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9)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는 통계적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등에 사용되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말한다. (위키백과)

20) p값은 유의수준으로 0.1%(0.001), 1%(0.01), 5%(0.05)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주로 5%의 기준을 많이 사용한다.

3. 측정결과 분석

교환학생을 통하여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인 문화역량에 대한 변화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 교환학생 전, 후의 문화역량 변화

교환학생 전과 후의 설문에 모두 참여한 동일 집단의 문화역량 변화를 검정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²¹⁾을 시행하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p<.01$ 의 결과가 나타났다.

<표4> 교환학생 전과 후의 문화역량 변화

N:53

| 구분 | 교환 전 | 교환 후 | 편차 (후-전) | t | p |
|---------|------|------|----------|----------|------|
| 문화역량 전체 | 3.51 | 3.93 | 0.42 | -8.219** | .000 |
| 지식 | 3.75 | 4.01 | 0.26 | -4.681** | .000 |
| 태도 | 3.77 | 4.12 | 0.35 | -3.979** | .000 |
| 기술 | 2.55 | 3.33 | 0.78 | -5.642** | .000 |
| 인식 | 3.97 | 4.25 | 0.28 | -5.306** | .000 |

** $p<.01$

문화역량은 지식, 태도, 기술, 인식 4개의 하위항목으로 각 3문항씩 전체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질문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화역량 전체 평균과 각 하위항목의 평균에 대한 교환 전과 후의 변화는 위의 표와 같았다.

우선, 전체 문화역량 평균을 보면 교환학생 전보다 후의 문화역량 평균이 3.93으로 약 0.42 정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t=-8.219(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교환학생 경험이 문화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역량의 하위항목별 평균 역시 모두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교환 후 인식항목 평균이 4.25로 가장 높았고, 기술 평균이 3.33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는 인식항목이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문화의 정도를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 전 (3.97) 또한 다른 구성요소보다 평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술 항목은 수업참여 또는 현지인과의 교류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의사소통 기술이 낮다고 평가하여 교환 전(2.55)과 후(3.33)의 평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항목별 향상 정도는 기술 평균이 0.78로 가장 높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21)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것으로, 동일한 표본에서 두 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 사용한다.

하위항목별 평균 향상 정도는 지식(+0.26)<인식(+0.28)<태도(+0.35)<기술(+0.78) 순이었다. 항목별 통계 결과 역시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문화역량 전체변화와 각 항목변화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역량과 교환 후 언어능력(듣고 말하기, 독해, 언어능력 목표달성)과 성취감(성적향상, 중국에 대한 흥미 고취, 현지 친구 사귀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표5> 교환 후 문화역량과 언어능력 및 성취감 간의 상관관계

N:53

| 변수 | | 문화역량 | 듣고말하기 | 독해향상 | 목표달성 | 성적향상 | 중국흥미 | 현지친구 |
|------|-------|-------|-------|------|------|-------|-------|------|
| 문화역량 | | 1.00 | | | | | | |
| 언어능력 | 듣고말하기 | .47** | 1.00 | | | | | |
| | 독해향상 | .53** | .65** | 1.00 | | | | |
| | 목표달성 | .34* | .23 | .28* | 1.00 | | | |
| 성취감 | 성적향상 | .32* | .18 | .35* | .29* | 1.00 | | |
| | 중국흥미 | .77** | .37** | .31* | .32* | .39** | 1.00 | |
| | 현지친구 | .53** | .31* | .26 | .16 | .19 | .58** | 1.00 |

** $p<.01$, * $p<.05$

교환 후 문화 역량과 언어능력 및 성취감의 하위영역에 대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문화 역량은 언어능력 중에서 독해 향상($r=.53$)에 가장 큰 양(+)의 상관 값을 가지고 그다음은 듣고 말하기, 목표달성 순이었으며,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성취감에서는 중국에 대한 흥미($r=.77$)가 가장 큰 양(+)의 값을 가지고, 그 뒤로 현지 친구, 성적 향상 순이었다. 언어능력과 성취감의 모든 하위항목에서 $p<.05$ 의 값을 나타내 통계적으로도 문화역량과 언어능력, 그리고 성취감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문화역량이 향상되면 자연적으로 언어능력과 성취감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문화역량에 초점을 두고, 교환 전과 과정 중의 요인에 따른 문화역량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2) 교환학생 전과 과정 중의 요인

문화역량 향상에 대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입별 특징에 따라 교환 전과 후의 설문내용을 달리하여 문화역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기본적인 요인들은 전재은 등(2014)의 설문 도구²²⁾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요인을 채택, 추가하여 설문 항목을 정하였다.

교환 전 설문지에는 성별, 중국 체류경험 여부, 현지 지인여부, 자격증, 교내 평점, 파견중

22) 전재은 외2명, 「대학생 해외 교류프로그램 참여 성과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2014, p.214.

류, 사전준비, 개인성향을 요인으로 정하였다. 성별은 사회통계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인 중 하나이며, 해외체류 경험은 “해외체류 경험은 문화역량 수준에 차이를 주는 요인 중 하나다”라는 연구²³⁾결과를 바탕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의 해외체류는 해외여행 경험자를 나타내고,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여행이 아닌 1년 이상 중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해외체류 경험자로 인정하였다.

현지 지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문화역량과 관련된 요인으로 연구되어 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다만,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아닌 해외 진출과 관련된 연구²⁴⁾에서 해외 진출 시 현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A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뎀²⁵⁾과 E탄뎀²⁶⁾ 프로그램에서 파트너 매칭시 ‘파트너의 희망지역’ 항목이 있는데, 이 역시 탄뎀을 통하여 현지 지인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지인 여부를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나머지 교환 전 요인들은 A 대학의 교환학생 선발 평가 방법인 “교내 평균평점(30점), 중국어 자격증(20점), 목적의식(20점), 태도 및 준비성(30점)”과 관련된 항목인 교내 평점평균, 자격증, 개인성향(적극도), 사전준비를 요인으로 정하였고, 체류 기간과 관련된 파견종류를 추가하였다. 이 요인들을 통해 선발조건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문화역량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환 후 설문 조사를 통해서는 교환 과정 중의 개인특성에 해당하는 수업형태, 현지인과의 교류 정도, 학습량 3가지 요인에 대하여 문화역량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험에 대하여 교환 전, 교환 과정 중, 귀국 후 3가지 시점에 걸쳐 조사한 연구²⁷⁾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 집단의 설문을 받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 한계로 2가지 시점인 교환 전과 과정 중의 요인으로만 조사하였다.

3) 요인별 문화역량 변화

(1) 교환 전 요인

23) 김옥순, 위의 논문, pp.62-64 참조.

24) 강은석,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한 태권도 전공자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세집단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태권도 전공자들의 해외진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5)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두 명의 외국어 학습자가 한 조를 이루어 50:50을 기본 원칙으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국어를 파트너에게 가르쳐 주는 외국어 학습방법을 Tandem 학습법이라 칭한다.” 진광호,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의 도입」, 『중국어학』, 제36집, 2010, p.3 인용.

26) “두 개의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카카오톡이나 위챗과 같은 모바일소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국어 또는 자신의 학습 목표로 소통하는 것을 모바일 탄뎀 소통이라 칭한다.” 하수권 외3명, 「자기주도 외국어학습 시스템 구축 수단으로서의 모바일 탄뎀(Tandem) 소통」,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제22권 제2집, 2017, pp.116 인용.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탄뎀을 E탄뎀이라 칭함.

27) 강미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험에 대한 연구: A대학 사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교환 전 8가지 요인중 성별, 중국 체류경험, 현지 지인여부를 관계-1, 면접항목과 관계가 있는 교내 평점평균, 자격증, 개인성향(적극도), 사전준비, 파견종류를 관계-2로 구분하였다. 요인별 교환 전과 후의 문화역량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 비교분석(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6> 교환 전 요인과 문화역량의 관계-1

N:53

| 구분 | | 명 | 교환 전 | | 교환 후 | | 편차 (후-전) |
|--------|----|----|------|--------|------|--------|-------------|
| | | | 평균 | t | 평균 | t | |
| 성별 | 남 | 28 | 3.55 | .591 | 3.89 | -.568 | 0.34 |
| | 여 | 25 | 3.47 | (.557) | 3.97 | (.572) | 0.50 |
| 중국체류경험 | 있음 | 26 | 3.51 | -.107 | 4.03 | 1.578 | 0.52 |
| | 없음 | 27 | 3.52 | (.916) | 3.83 | (.121) | 0.31 |
| 현지지인 | 있음 | 8 | 3.54 | .139 | 3.96 | -1.071 | 0.42 |
| | 없음 | 45 | 3.51 | (.890) | 3.42 | (.289) | -0.09 |

성별에서는 교환 전에는 남학생의 문화역량이 높았지만, 교환 후에는 여학생의 평균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체류 경험에서는 교환 전에는 문화역량이 서로 비슷한 수준(약 3.5)이었지만, 교환 후 체류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의 평균이 0.52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지 지인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없음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전체 53명 중 45명(84.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 경우 전체 요인 중 유일하게 문화역량 평균이 향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환학생을 가고자 하는 곳에 현지 지인이 있으면 문화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7> 교환 전 요인과 문화역량의 관계-2

N:53

| 구분 | | 명 | 교환 전 | | 교환 후 | | 편차 (후-전) |
|------------|---------|----|------|-------------------|------|-------------------|-------------|
| | | | 평균 | F | 평균 | F | |
| 교내 평균평점 | 3.0미만 | 2 | 2.83 | 1.224 (.313) | 3.48 | 1.438 (.236) | 0.65 |
| | 3.0~3.2 | 6 | 3.42 | | 3.64 | | 0.22 |
| | 3.3~3.8 | 29 | 3.59 | | 4.00 | | 0.41 |
| | 3.9~4.1 | 11 | 3.44 | | 3.92 | | 0.48 |
| | 4.2~4.5 | 5 | 3.60 | | 4.03 | | 0.43 |
| 자격증 HSK | 없음 | 19 | 3.58 | .641 (.593) | 4.03 | 1.259 (.299) | 0.45 |
| | 4급 | 8 | 3.55 | | 4.07 | | 0.52 |
| | 5급 | 17 | 3.37 | | 3.79 | | 0.42 |
| | 6급 | 9 | 3.60 | | 3.83 | | 0.23 |
| 개인 성향 | 上 | 30 | 3.73 | 7.495** (.001) | 4.10 | 6.190** (.004) | 0.37 |
| | 中 | 19 | 3.26 | | 3.71 | | 0.45 |
| | 下 | 4 | 3.14 | | 3.67 | | 0.53 |

| | | | | | | | |
|----------|-----|----|------|----------------|------|------------------|------|
| 사전 준비 | 上 | 33 | 3.58 | .769 (.469) | 4.05 | 3.830* (.028) | 0.47 |
| | 中 | 19 | 3.40 | | 3.72 | | 0.32 |
| | 下 | 1 | 3.38 | | 3.75 | | 0.37 |
| 파견 종류 | 7+1 | 15 | 3.42 | .324 (.725) | 3.73 | 2.702 (.077) | 0.31 |
| | 3+1 | 33 | 3.54 | | 3.98 | | 0.44 |
| | 2+2 | 5 | 3.58 | | 4.20 | | 0.62 |

교내 평점 평균 요인에서는 평점 평균이 좋을수록 교환 전, 후 모두 문화역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교환 후 문화역량은 3.0 미만의 학생 평균이 가장 많이 향상(0.65)되었음에도, 다른 집단보다 평균 평점이 가장 낮은 3.48이었다. 평균 평점이 3.3 이상일 경우 문화역량 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격증 요인에서는 교환 전 6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문화역량이 가장 높았지만, 교환 후에는 자격증이 없거나, 4급인 학생들의 문화역량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선발 시 자격증 급수가 높을수록 선발에 유리한 것과는 달리 급수가 없거나 낮아도 문화역량 향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성향과 사전준비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성향 측면에서는 上 집단이 교환 전(3.73)과 후(4.10) 모두 문화역량 평균이 가장 높았다. 비록 향상 정도는 下 집단이 0.53으로 가장 높았지만, 최종 문화역량 평균은 上 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성향이 적극적일수록 문화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전준비에 대한 문화역량은 교환 전과 후 모두 上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역량 향상 정도가 가장 높게 향상된(0.47) 집단 역시 上 집단이었다. 中과 上의 차이는 0.03으로 아주 미미하였지만, 이는 사전에 교환학생 관련 준비 정도에 따라 문화역량이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신창원(2018)²⁸⁾이 “사전준비 부족에 따라 파견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한 부분과 같은 명목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견 기간과 관련된 파견종류 요인은 7+1이 6개월, 3+1이 1년, 2+2는 2년의 기간을 나타낸다. 교환 전과 후 모두 파견 기간이 길수록 문화역량 평균이 높았으며, 향상 정도도 높았다. 즉, 해외 체류 경험이 길수록 문화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환 전 요인에서는 개인성향이 교환 전($F=7.495, p<.01$), 후($F=6.190, p<.01$)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사전준비는 교환 후($F=3.830, p<0.05$)만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다. 즉, 교환 전 요인에서는 F값이 가장 높은 개인성향이 문화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사전준비 정도에 따라 교환 후 문화역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교환 과정 중의 요인

28) 신창원, 「예비영어교사의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 모델」, 『미래영어영문학』, 제23권 제3집, 2018, pp.243-271.

교환 후 실시한 설문조사는 교환 과정 중의 요인에 해당하는 수업형태, 현지인 교류, 학습량 3가지로 정하여 문화역량 향상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표8> 교환 과정 중의 요인과 문화역량의 관계

N:53

| 구분 | | 명 | 교환 전 | | 교환 후 | | 편차 (후-전) |
|-----------|-------|----|------|------------------|------|-------------------|-------------|
| | | | 평균 | F | 평균 | F | |
| 수업 형태 | 본과 | 2 | 3.86 | .459 (.635) | 4.10 | .382 (.685) | 0.24 |
| | 어학원 | 41 | 3.49 | | 3.90 | | 0.41 |
| | 본과+어학 | 10 | 3.52 | | 4.01 | | 0.49 |
| 현지인 교류 | 上 | 7 | 3.62 | 3.360* (.043) | 4.05 | 5.240** (.009) | 0.43 |
| | 中 | 9 | 3.18 | | 3.60 | | 0.42 |
| | 下 | 37 | 3.36 | | 3.71 | | 0.35 |
| 학습량 | 上 | 20 | 3.56 | 1.712 (.191) | 4.07 | 3.106* (.054) | 0.51 |
| | 中 | 29 | 3.54 | | 3.89 | | 0.35 |
| | 下 | 4 | 3.06 | | 3.50 | | 0.44 |

교환학교의 수업형태에 대해 파견 전 학생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현지 상황에 따라 수업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교환 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 응답자들은 파견종류에 따라 7+1은 모두 어학원 수업을 들었고, 3+1과 2+2는 본과수업을 바로 듣거나 어학원 수업을 듣다가 실력이 향상된 이후 본과수업을 들었다고 답하였다.

설문결과 본과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2명에 불과하고, 문화역량 향상 정도가 0.24로 비교적 낮았지만, 이 학생들의 문화역량 평균은 교환 전(3.86), 후(4.10)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래 본과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의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파견한다면, 교환 후 더 높은 문화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과와 어학원 수업을 모두 들었던 학생들의 문화역량 향상 정도는 0.49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는데, 이 역시 어학원 수업을 단독으로 듣는 것보다 본과수업의 참여 경험이 학생들의 문화역량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지인 교류와 관련해서는 上 집단의 문화역량 평균이 가장 높고, 향상 정도도 0.43으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파견 학생들이 현지인과의 교류를 원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만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현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현지인과 교류할 수 있으면 문화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학습량은 학습량에 따라 1시간 미만을 下, 1시간~2시간을 中, 2시간 이상을 上으로 리코딩하였다. 교환 전과 후의 학습량에 따라 문화역량 평균도 달리 나타났다. 학습량이 많은 上 집단의 평균이 0.51점 상승하여 4.07로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로 학습량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며, 교환국에서의 학습 정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환 후의 요인에서는 현지인 교류가 F값이 다른 요인보다 높게 나타나 문화역량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교환 기간 중의 학습량이 많을수록 문화역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제시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을 적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문화역량향상에 도움이 되는 3가지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환학생 선발방법 변경 또는 추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 선발조건은 교내 평균평점, 자격증 점수, 면접으로 선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존 선발조건인 자격증 항목은 자격증이 없거나 4급을 취득한 학생들의 문화역량이 더 높았다. 교내 평균평점 항목에서는 3.3점 이상 학생들의 문화역량 평균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통계 결과에서는 기존의 선발조건보다 체류경험과 현지 지인의 여부, 개인성향, 사전준비 정도, 파견종류에 따라 문화역량 향상 정도가 달랐다. 교환 과정 중의 요인에서는 본과수업을 듣는 경우와 현지인과의 교류가 적극적이고, 학습량이 많을수록 문화역량 평균이 높았다.

기존 선발항목인 교내 평점평균과 자격증 조건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반영비율(50%)을 조금 줄이고, 줄인 비율에 학생들의 사전준비 정도 즉, 교환학교 또는 파견 지역에 대한 정보를 학생 스스로가 찾아보는 등의 적극도를 추가 반영하여 선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파견 기간이 비교적 길거나, 본과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로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여 파견한다면 학생들의 문화역량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기 경험자가 참여하는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교환 전 주관식 조사에서 답변한 20명 학생의 의견은 “파견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정확한 정보와 공지를 전달해주기 바란다. (교육과정, 학교 활동, 기숙사, 학점인정 등의 정보)”고 서술하였다.

실제 대표 답변들은 아래와 같다.

“학생들 파견 보내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질문사항이 있어 질문하였을 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이 있는지 사전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

“정보 면에서 매우 부족하여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다.”

“교환학교에 수강신청 전 전공학점 인정에 관한 공지를 알려주면 좋겠다.”

“학기 직전 교환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통계 결과 사전준비가 문화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교육방안에서 제시한 사전준비는 학생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점인정과 기숙사, 수업커리큘럼 등의 정보는 현지 학교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

학교 측에서는 교환 파견 전 전체 파견 학생들을 대상으로 OT를 진행한다. 하지만 파견학교별로 OT를 진행하여 합격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기숙사, 학점인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학생들이 사전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파견학교별 학생 수도 상이하고, 담당 직원도 해당 교환학교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교환학생을 다녀온 기 경험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 경험자와 교환 예비자와의 만남 또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교환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올바른 정보와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현지인과의 교류를 교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지 지인이 있거나, 현지인과의 교류가 적극적일수록 문화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 대부분이 현지인과의 교류 없이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언어능력 향상과 문화역량 향상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며, 현지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교환 후 조사에서 주관식 답변에 응답한 34명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해 배우면 언어능력을 더 빨리 느는 것 같다.”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의사소통하기 위함인데 책에서 배운 내용이 현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직접 현지에서 부딪히면서 몸소 느끼면 언어능력이 빠르게 향상된다.”

“탄뎀 프로그램이 중국 현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공부하는 언어를 해당 국가에서 학습하고, 언어습관과 문화를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다.”

“그 나라에서 현지인들의 생활 문화를 접하고 적응함으로써 언어 향상과 더불어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언어 능력향상 및 타문화 체험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중국인 한국인 1:1 매칭이 제도적으로 많이 이루어 지면 좋겠다.”

현지 교환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중국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설문 대상자인 A 대학의 ‘탄뎀수업’과 탄뎀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E탄뎀’을 통하여 현지 친구들을 미리 알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는 현지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 지인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된다. 현지 적응과 함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교내 중국인 학생들 역시 한국 친구를 소개받을 수 있기에 상호 외국어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문화역량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5. 결론

대학생의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문화역량 변화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교환학생 파견 전과 후의 설문을 통하여 교환 전 요인과 과정 중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문화역량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Fantini의 문화역량평가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의 연구 방향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사전 30문항, 사후 25문항으로 동일 집단의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교환 전과 후의 설문을 모두 마친 학생 53명의 응답자를 연구대상 범위로 정하였으며, 측정결과는 통계프로그램 SPSS(ver.25)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통계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환학생 후 문화역량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교환학생 전과 후의 문화역량 변화는 전체 문화역량 평균과 각 하위 항목(지식, 태도, 기술, 인식)의 평균 변화가 모두 향상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교환 후 언어 능력향상과 성취감에 대한 항목과 문화역량의 상관관계를 통계 처리한 결과 각 요인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환학생을 통해 문화역량이 향상되었고, 문화역량의 향상은 언어능력과 성취감을 높여준다는 본 연구의 주제를 성립시켜준다. 이에 따라 교환 전과 과정 중의 요인에 따른 문화역량 정도를 비교하였다.

둘째, 요인별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교환 전 요인 8개와 과정 중 요인 3개로 구분하여 문화역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교환 전 요인에서는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와 현지 지인이 있는 경우 교환 후 문화역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문화역량이 향상되었지만, 현지 지인 없음 항목은 하향된 결과로 나타나, 현지 지인이 있는 경우 문화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 평점은 높을수록 교환 전과 후의 문화역량이 높았으며, 자격증은 급수가 낮아도 문화역량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성향이 적극적이고 사전준비가 많을수록 교환 전과 후 모두 문화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파견종류는 체류 경험이 길수록 문화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환 과정 중의 요인에서는 본과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의 문화역량이 교환 전부터 높게 나타났으며, 본과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문화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과수업의 참여가 학생들의 문화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지인 교류가 활발하고 학습량이 많을수록 문화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결과 현지인과의 교류가 문화역량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대처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위의 통계 결과와 설문 조사의 주관식 답변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3가지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1) 교환학생 선발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기존 선발조건인 평점, 자격증, 면접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평점과 자격증의 배점을 조금 줄이고, 개인성향이 적극적이고, 사전준비도(교환학교와 지역에 대한 정보력)에 대한 선발방법을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본과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로 학생 선발 수를 늘려 파견 보내면 학생들의 문화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2) 파견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관식 답변에 응답한 학생들은 모두 “정보 부족”을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역량의 향상 요인 중 하나인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문화역량 평균이 높다는 통계 결과를 참

고하여 사전에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해당 부서에서는 학교별 OT를 진행하거나, 기 경험자와 교환학교 합격생들이 교환 프로그램 관련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탄뎀 수업과 E탄뎀을 통하여 교환학교 지역의 현지 지인을 사전에 소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학교에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1:1 매칭이 되어 수업하는 커리큘럼이 있다. 탄뎀을 한 학기 수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트너를 교환 갈 현지 학생으로 매칭 해주거나, 학교 탄뎀 센터에서 운영하는 E탄뎀을 활용해 파견 지역의 파트너를 소개받아서 사전에 해당 지역과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중 한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데 반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는 여러 해외프로그램 중 중국 파견 학생의 교환 전, 후의 문화역량에 대하여 조사·분석해 보았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활용하여 교환학생 파견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또한, 학생들이 문화역량 부분에서의 성장을 이루어 언어능력과 성취감 모두 향상되어 성공적인 교환학생 과정을 마치기를 바란다.

끝으로 위의 방안을 기반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들의 역량이 얼마나 어떻게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강미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험에 대한 연구: A대학 사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강은석,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한 태권도 전공자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세집단의 연구를 중심으로한 태권도 전공자들의 해외진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연희, 「한국 사회의 다문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제35집, 2007.
- 김영기·김찬석·문송이·박진수, 「외국인 유학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60권 제2집, 2016.
- 김옥순, 「해외체류경험과 외국어 사용 능력에 따른 문화간 감수성 수준의 차이: 경기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1집, 2008.
- 노충래·김정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2집, 2011.
- 박분주·이윤경, 「다문화 교환학생들과의 협력학습이 영어학습자들의 상호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과학연구』, 제81집, 2017.
- 박세영, 「평생교육기관에서 중국어회화를 배우는 중장년 학습자의 문화적 역량 탐색」, 『평생학습 사회』, 제14권 제4호, 2018.
- 신창원, 「예비영어교사의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 모델」, 『미래영어영문학』, 제23권 제3집, 2018.
- 안원실, 「학습자 중심의 일본어 교육 -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교육연극을 통해」, 『일본어학연구』, 제35집, 2012.
- 위미나, 「문화적 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두원, 「한-중 대학생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수행능력에 대한 탐색연구: 호스트와 체류자 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9권 제2집, 2011.
- 이승연,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에 대한 다각적 검토: 교사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이중언어학』, 제55집, 2014.
- 전재은·이수지·서경화, 「대학생 해외교류프로그램 참여 성과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2014.
- 진광호,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의 도입」, 『중국학』, 제36집, 2010.
- 하수권·진광호·이효영·이길연, 「자기주도 외국어학습 시스템 구축 수단으로서의 모바일 탄뎀(Tandem) 소통」,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제22권 제2집, 2017.
- 한종임, 「가상교실 기반의 국제문화 교류협력(collaboration) 활동이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국제문화이해 역량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제19권 제3집, 2016.
- Chen·Starosta,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2000.
- Doman Lum,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engage Learning, 2010.
- Fantini, "A central concern: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bout Our Institution*, 2000.
- Fantini·Tirmizi, "Explor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World Learning Publications*, 1, 2006.
- Teichler U, "Temporary Study Abroad: the life of ERASMU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39(4), 2004.

【논문초록】

| | | | | |
|--|-------|--|-------|---------------|
| 키워드 Key Words | 중문 | 中国派遣生, 交换生, 文化能力, 教学方案, Tandem | | |
| | 영문 | Student Dispatched to China, Exchange Student, Cultural Competency, Educational Method, Tandem | | |
| <div><div>A Proposal of Educational Methods for Improving Cultural Competency of Students Dispatched to China</div><div>Choi, Seon-Jin</div><div>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each universities actively run a student exchange program. In addition,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cultural competency for international exchanges. These days, more and more Korean students are going to China to study its language and culture but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make better programs or systems for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to identify changes of cultural capacity through the exchange program in China. For research,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 university's Chinese studies students who participate in exchange student program in China from 2016 to 2018. A group of 53 students responded survey on two separate occasions. Based on the statistical results and opinions on the subject matter, researcher identified the problems of current exchange student program, the way for further improvements and three options for educational methods. 1) Changing the method of selecting exchange students or suggesting additional conditions, 2) Establishing an information network with prior experience in exchange student, 3) Supporting various interacting programs with natives inside a college before exchanging.</div></div> | | | | |
| 저 자 인적사항 | 성 명 | 최선진 / 崔善珍 / Choi, Seon-Jin | | |
| |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 | |
| | Em@il | hohohaha4321@gmail.com | | |
| 논 문 작성일시 | 투 고 일 | 2019년 08월 20일 | 심 사 일 | 2019년 08월 26일 |
| | 수 정 일 | 2019년 09월 09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09월 17일 |